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종려주일]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91장 다같이

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2.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3.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부르리
4.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후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마태복음 27장 46절 인도자

설 교 “애통하는 삶”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온전한 믿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2.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3. 갯세마네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애통하는 삶

마태복음 27:46

시편 150편 중 삼분의 일이 탄식하는 슬픈 노래다. 그뿐 아니라 욥기,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하박국을 비롯하여 성경 곳곳에 슬픈 노래가 많이 나온다. 사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눈물도 많아진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눈물이 양약처럼 슬픔을 씻어 준다. 울어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이 치유되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막혔던 것들이 뚫린다.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된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나는 눈물을 통해 세상을 볼 것이다. 그러면 마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리라”고 했다. 경건한 슬픔과 상한 마음은 성도를 구분하는 특징이다. 애통이 없는 곳은 진정한 삶에서 동떨어지고,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진다. ▶팔복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여덟 가지 복된 삶이다. 팔복의 핵심은 애통하는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 ‘애통하다’는 것은 격심한 비통을 겪는 것으로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처럼 가장 강한 슬픔을 갖는 것이다. 애통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모든 애통은 그 자체로 기도다. 애통은 믿음의 고백이다. 애통은 고통과 하나님의 선하심 사이에 씨름하는 상한 심령의 솔직한 울부짖음이다. 슬퍼서 우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애통하는 것은 기독교적이다. 죄악, 불의, 고통, 불행, 상실에 대해서 우리는 눈물을 애통으로 바꾸어야 한다. 애통은 상심에서 소망으로 가는 통로다. 애통보다 나쁜 것은 조용한 절망이다. 애통의 기도는 침묵보다 낫다.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시 22:1). ▶본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애통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의미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히 5:7)라고 되어 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다.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 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애통할 것을 주문하신다. 우선 우리는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눅 23:28). 지금 애통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절망적 비통만이 남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자신을 보고 울어야 한다. 성도는 자기를 보고 많이 우는 사람이다. 자신이 영적으로 과산되었음을 알고 슬퍼하는 것, 죄로 죽어 있는 자신의 주검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도록 슬퍼하는 모습, 자신의 바닥을 정확히 본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과 도시, 국가, 세상의 문제들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밥 피어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로 내 마음이 상하게 되기를”이라고 했다. 애통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언어다. 애통은 하나님 나라를 부르는 기도다. ▶이처럼 우리에게 눈물의 사역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필요하다. 컴패션(compassion)이 사명이다. 하나님의 동정과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게 된다. 당신의 눈물이 메말라 버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버림받고 지옥으로 간다. 눈물이 사막을 옥토로 만든다. ▶애통이 없는 곳은 진정한 삶에서 동떨어지고,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진다. 애통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것이다. 눈물로 내 메마른 영혼을 적셔야 한다. 굳어진 마음의 땅을 다시 기경해야 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마음을 녹인다.”